

보도분류	브리핑( ) 보도자료 제공( ✓ )
보도일시	<b>2021. 9. 14.(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작성과	영종청라기반과
담당	과장 천준홍, 스마트도로팀장 성정은, 담당 백종욱(032-453-7772)

## “IFEZ · 현대자동차,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힘 모은다”

전기차 인프라 구축 협력 · 운서역 공영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등 골자 업무협약 체결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은다.
- 인천경제청은 14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IFEZ 비즈니스센터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는 이원재 인천경제청장과 김흥수 현대차·기아 상품본부장 겸 EV사업부장(전무) 등이 참석했다.
- 업무협약의 골자는 △양 기관이 IFEZ 내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15일부터 무료 시범 운영을 거쳐 내달 1일 정식 개장하는 영종 운서역 공영주차장에 350kw급 초고속 충전소 6기와 3kw급 콘센트형 완속충전기 100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설치하는 것 등이다.
- 초고속 충전기 등이 운서역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면 기존에 설치된 고속 충전기 2기·완속충전기 8기와 함께 시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충전할 수 있게 된다.
- 운서역 공영주차장은 인천경제청이 총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 8월 착공한 주차 전용 건축물로 연면적 3만1,693㎡에 지상 4층 규모다. 승용차 997대와 버스 37대 등 총 1천3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인천 최대의 공영

주차전용 건축물이다.

-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보다 나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며 “특히 이번 협약이 전국 지자체 최초 협약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천이 탄소중립도시가 되는데 IFEZ가 앞서서겠으며 앞으로 IFEZ 내 미래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